



제6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22일)

시와 그림이 있는 여름밤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 당나라 문인 왕유王維(699?-759)의 시와 그림에 대한 소식蘇軾(1036-1101)의 말입니다.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니, 예로부터 시와 그림은 일치하여, 경중을 조그만 차이로도 가를 수 없네(詩爲有聲畫, 畫乃無聲詩, 古來詩畫爲一致, 輕重未可分毫釐)”, 조선 초의 문신 성간成侃(1427-1456)이 화가 강경우姜景愚를 찬탄한 시의 첫 구절입니다. 시에 그림과 같은 시각 요소를 살리거나, 그림에 시와 같은 서정성을 표출하여 양자를 함께 높은 경지의 예술로 승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예술의 전통이었습니다.

고전 시문과 시인들의 일화를 표현한 고사인물화는 특히 시와 긴밀합니다. 조선에서 서화의 주제로 널리 다루어진 인물로는 동진의 도잠陶潛(365-427)을 들 수 있습니다.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의 바탕에 깔린 「도화원기桃花源記」의 서사, 「귀거래사歸去來辭」와 「음주이십수飲酒二十首」 등 벼슬을 내려놓고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도연명의 시는 많은 글씨와 그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백李白(701-762), 두보杜甫(712-770)를 비롯한 당 시인들의 작품은 명나라 말에 삽화를 곁들인 『당시화보唐詩畫譜』로 출간되어 시화詩畫로 기념되었습니다. 여성 시인이었던 설도薛濤(768-831) 또한 고사인물화에 종종 등장하였습니다. 송대 문인 임포林逋(967-1028), 소옹邵雍(1011-1077), 소식, 미불米芾(1051-1107) 등의 시와 일화도 후대 서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고사인물화를 감상하며 참석자 여러분과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도연명>과 도잠의 「귀거래사」, 이재관李在寬(1783-1838)이 그린 <미인사서도美人寫書圖>와 설도의 「춘망사春望詞」, 이한철李漢喆(1812-1893 이후)이 그린 <꽃놀이로 심취한 소옹>과 사마광司馬光(1019-1086)의 「약속한 소옹은 오지 않고(約邵堯夫不至)」 등 그림 앞에 앉아 시를 읊으며 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6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22일)

공간을 담아낸 조선의 지도

전시과 백승미 | 특별전시실 및 중근세관 114호실 | 18:00~18:30

다양한 형태의 옛 지도에는 당대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에 관한 관점, 그들이 가진 수많은 가치와 욕망,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갈 바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계를 담은 지도, 나라를 그린 지도, 경계와 이역에 관한 지도, 천문에 대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담아낸 조선의 지도들은 당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속에서 문명의 계승자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또한 서양 문명을 비롯한 다른 세계의 인식을 수용하는 과정 또한 지도 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1402년 제작된 조선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는 비록 원본은 사라지고 필사본만 남았지만, 중국 원나라에 알려진 유럽, 아프리카, 인도에 대한 지리 지식을 담은 지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조선 초기 제작된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는 조선의 국토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일본여도日本輿圖>, <요동지도遼東地圖> 등의 귀중한 자료들은 경계 너머의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자 했던 조선의 노력을 엿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같은 천문 지도들은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 받들어, 아래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조선의 통치 이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1 <조선방역지도> (국보 제248호)
조선, 1557년(명종 12)
비단에 먹과 색, 61.0×132.0cm, 족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림2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보물 제1537-1호)
조선 18세기 중반
종이에 채색, 143.0×203.0cm, 낱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6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22일)

신과 함께 - ‘현왕도’로 보는 저승의 신

유경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극장가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탄에 이어 2탄이 천만 관객을 넘어 ‘국내 최초 쌍천만 시리즈 영화’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3·4편의 가능성까지 예고되는 이 영화의 시작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 의로운 죽음을 맞은 주인공 자홍의 사후 세계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망자亡子 자홍은 저승세계의 무서운 왕들을 만나 심판을 받았지만 살아생전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환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붉은 색 포袍를 입고 관위에는 경책을 얹은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삼곡형三曲形 병풍을 배경으로 선녀형 머리를 한 천녀와 여러 인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중앙에 앉아 있는 주인공은 보현왕여래普賢王如來, 축약하여 현왕現王이라 부릅니다. 현왕은 또 염라대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 10명의 왕을 만나 살아서의 죄를 심판받습니다. 명부세계冥府世界 10명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제 5대왕인 염라대왕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인기는 저승세계의 10명의 왕을 모두 만나지 않고도 왕들 가운데 이른 바 ‘신속한 심판’을 하는 현왕의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왕은 저승세계에 빠진 망자를 3년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고 3일 만에 즉결심판을 하여 정토의 세계로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주름진 얼굴과 덩수룩한 수염,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이런 현왕님을 만나면 망자는 좋은 세상으로 인도 될 것 같습니다.



보훈普訓 등 <현왕도>(신수14138), 조선 1798년, 견본채색

제60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22일)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2)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20세기가 되어서도 스페인 사람들은 엘도라도의 전설을 포기 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사실 무이스카족은 과타비타뿐만 아니라 시에차(Siecha), 우바케(Ubaque), 과스카(Guasca) 호수 등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봉헌의식을 치렀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에게는 봉헌의식 자체보다는 오로지 엘도라도의 눈부신 재물이 호수 바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타비타 호수는 거의 파괴되었고, 시에차를 비롯한 다른 호수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886년 콜롬비아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황금 찾기는 계속됩니다. 1898년에는 '과타비타 호수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뿔아내었지만, 햇볕에 노출된 바닥에서 황금장신구 몇 개만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에차 호수는 깊은 터널을 만들어 수위를 낮췄는데, 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약탈 행위 도중 발견된 많은 봉헌물을 녹여 금괴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찾던 엘도라도의 실체는 결국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심한 가뭄으로 시에차 호수의 바닥 일부가 드러나자, 황금 뿔목이 발견되었습니다. 뿔목 중심에는 족장이 서 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물상의 도상은 16세기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Fernández de Oviedo, 1478-1557)의 『서인도제도의 자연사와 역사(Historia general y natural de las Indias)』에 묘사된 과타비타 호수의 의식과 유사한 봉헌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엘도라도의 전설이 발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로 발견된 이 뿔목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뿔목은 유럽으로 팔려나가 독일의 브레멘 항구에 도착한 후 근처 창고에 불이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과타비타 호수 등지에서 보물을 건지려 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뜻을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1965년 콜롬비아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 1625년, 해셀 게리츠

정부는 최종적으로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과타비타 호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채굴을 금지시키고 물을 뿔 수 없도록 했습니다.